

4/19/20

설교 제목: 하나님의 저주 받은 자의 일시적인 번영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10 장 1-32 절

- (창 10:1)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 (창 10:2)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 (창 10:3)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 (창 10:4)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라
- (창 10:5)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 (창 10:6)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 (창 10:7)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 (창 10:8)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첫 용사라
- (창 10:9)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 (창 10:10)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 (창 10:11) 그가 그 땅에서 앗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 (창 10:12)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 (창 10:13)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뫼와 르하빔과 납두힘과
- (창 10:14)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 (창 10:15)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 (창 10:16)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 (창 10:17)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 (창 10:18)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 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 (창 10:19)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 (창 10:20)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 (창 10:21)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 (창 10:22)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앓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 (창 10:23)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 (창 10:24)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 (창 10:25)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 때에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욥단이며
- (창 10:26) 욥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과 예라와
- (창 10:27)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 (창 10:28)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 (창 10:29) 오빌과 하월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욥단의 아들이며
- (창 10:30)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 (창 10:31)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 (창 10:32)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종려 주일과 부활절에 절기 설교를 하느라 잠시 접어두었던 창세기 10 장으로 돌아 왔습니다. 3 주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전장의 내용을 간단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전장인 9 장에서 노아는 자신의 허물을 대하는 세 아들들의 태도에 따라 그들을 저주하거나 축복했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형제들에게 고한 함의 아들 가나안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라고 저주했고 반면에 자신의 허물을 덮어준 셈에게는 특별한 영적인 축복을 야벳에게는 창대함의 축복을 했습니다.

저자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죄 덮어주심의 은혜를 계시해 주고 나아가 하나님께 죄 덮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0 장 본문은 아버지 노아의 저주와 축복을 받은 삼형제 야벳 함 셈의 후손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손의 이름들이 주욱 나열되어 있어서 지루하기도 하지만 이들이 인류 초기 민족들을 형성하여 국가가 되었다는 점에서 본문은 자세히 들여다 볼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문은 1 절이 서론이고 32 절이 결론이며 2 절부터 31 절까지가 본론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론에 노아의 후손 70 명 중 야벳의 후손들 14 명, 함의 후손들 30 명, 셈의 후손들 26 명이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자 모세는 서론에서 노아의 세 아들들을 9 장에서와 같이 셈 함 야벳의 순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 10:1)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렇지만 본론에서는 순서를 바꿔 야벳 함 셈의 순서로 언급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들이 퍼져나간 지역의 향방별로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방향을 거론할 때에 항상 북남동서 순으로 합니다.

진을 치거나 행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쪽 방향인 유럽 지역으로 퍼져나간 야벳 후손들을 먼저 기록하고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쪽 방향인 바벨론과 가나안 지역으로 퍼져나간 함의 후손들을 기록했으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 방향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퍼져나간 셈의 후손들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야벳의 후손들이 지명과 함께 소개됩니다.

(창 10:2)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창 10:3)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창 10:4)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라

(창 10:5)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야벳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를 낳았고 이들은 북방 민족들을 형성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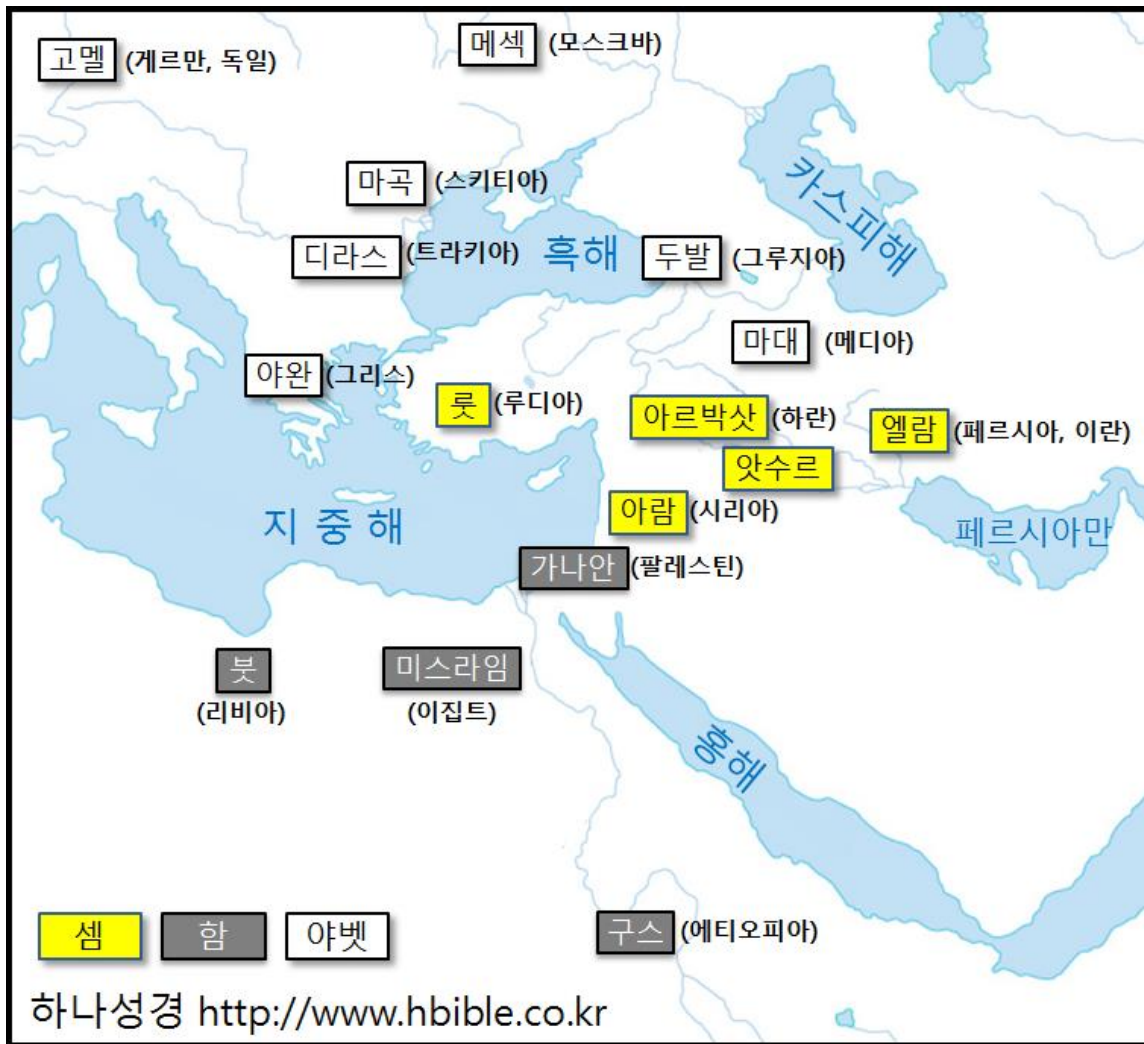
고멜 후손은 신약 시대 갈라디아라고 불렀던 지금의 터키에 자리를 잡았다가 후에 프랑스와 스페인으로 이주하였고 어떤 이들은 독일까지 갔습니다.

마곡 후손은 스키타인이라고 불렸으며 지금의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에 살았습니다.

마대 후손은 지금의 이란, 야완 후손들은 그리스 지역에 살았습니다.

두발 후손은 에스겔에서 곡과 메섹과 함께 언급된 민족이고 메섹 후손은 지금의 모스크바, 디라스 후손은 지금의 유고 슬라비아 지역에 살았습니다

이와같이 야벳의 후손들은 주로 터키와 그리스 및 유럽 지역에 퍼져 살았습니다.



다음은 함의 후손들에 대한 소개인데 좀 깊니다.

(창 10:6)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창 10:7)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월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창 10:8)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첫 용사라

(창 10:9)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함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을 낳았습니다.

함의 후손들은 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살았습니다.

구스 후손은 에디오피아, 미스라임 후손은 이집트, 붓 후손은 리비아, 가나안 후손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습니다.

저자 모세는 구스의 아들 중 특별히 니므롯을 지목하여 설명합니다.

니므롯을 세상의 첫 용사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소개합니다.

니므롯이 유능한 사냥꾼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기 사람을 많이 거느린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유능한 니므롯을 자신들의 영웅으로 섬기며 그가 자신들을 잘 먹여 주고 잘
살게 해 주길 바랬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니므롯의 나라 시날 땅 바벨론 지역은 강이 흐르고 있어 주위에 다른 땅들과는 달리 기름지고
비옥합니다.

따라서 서로 차지하려고 해 싸움이 그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니므롯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은 그가 힘이 있어 싸움에서 이겼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창 10:10)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창 10:11) 그가 그 땅에서 앗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창 10:12)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니므롯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반역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의 종국은 인간이 하나님ی 되기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니므롯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 니므롯의 나라에 바벨탑이 세워지게 됩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끊임없이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기를 갈망하고 시도해 왔습니다.

또 저자 모세는 가나안 후손들을 비중있게 기록했습니다.

(창 10:15)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창 10:16)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창 10:17)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창 10:18)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 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창 10:19)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창 10:20)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가나안 후손들은 아버지 함이 할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하체를 드러내는 실수를 범하였을때 그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형들에게 고한 죄로 할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후손들입니다.

그렇지라도 가나안 후손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지고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지역을 '비옥한 초생달 지대'라고 합니다.

이 땅은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나일 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연결하는 길목에 있습니다.

이런 좋은 땅들을 함의 후손들이 모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에도 오히려 번성하고 번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셈의 후손들입니다.

(창 10:21)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창 10:22)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앗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창 10:23)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창 10:24)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창 10:25)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 때에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욱단이며
(창 10:26) 욱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과 예라와
(창 10:27)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창 10:28)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창 10:29) 오빌과 하월라와 요발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욱단의 아들이며
(창 10:30)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던라
(창 10:31)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엘람 앓수르 아르박삿 롯 아람을 낳았습니다.

엘람 후손은 페르시아, 앓수르 후손은 앓시리아, 아르박삿 후손은 하란, 롯 후손은 리디아, 아람 후손은 시리아 지역에 살았습니다.

노아로부터 큰 영적 축복을 받은 셈의 후손들이지만 별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본 후 좀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것은 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아 천하고 험난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한 함의 후손들이 의외로 변영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세 아들에게 저주와 축복을 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에서 용사가 나왔고 그들은 다른 후손들과는 달리 오히려 기름지고 비옥한 좋은 땅을 차지해 살고 있었습니다.

본문만 보면 노아의 저주와 축복은 후손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었습니다.

함의 후손은 잠시 변영을 누렸지만 종국에는 노아의 저주대로 셈의 후손의 종들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은 셈의 후손 중 아브라함(창 10 장 10-26 절 참조)을 지목하여 불러내셔서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던 바벨론과 가나안 그리고 이집트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들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세우십니다.

(창 15:1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창 15:19)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창 15:20) 헛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창 15:21)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이 언약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언약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여금 가나안에 쳐들어가서 그곳에 사는 함의 후손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자신들의 종들의 종으로 삼아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함의 후손을 셈의 후손의 종들의 종으로 전락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구약 시대 바벨론에 살았던 함의 후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거대한 힘과 세력들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계 18:1)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 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계 18:2)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계 18:3)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바벨론 곧 세상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라도 사람들은 그럴리가 없다고 그런 말은 2천년 전부터 계속 들어왔다고 하며 이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번영을 누리 천년 만년 그렇게 살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종국에는 말씀대로 형들의 종들의 종이 된 함의 후손들의 경우처럼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계 18:4)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재앙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 받을 담그고 있는 바벨론에서 시급히 탈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영웅주의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구원받아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바벨론이 되어 버린 세상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계 18:8)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계 18:9)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계 18:10)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어떤 희생과 고통과 손해를 치르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벨론에서 탈출하여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면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